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1

충현의 만나

2004

가정예배 사무엘하 · 빌립보서 · 열왕기상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1

2004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사무엘하 · 빌립보서 · 열왕기상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 도 제 목

1. 우리 가정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여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 주소서.

목 표



출발선에 서서 떨리는 숨 고르며
결승선을 바라보는 육상 선수처럼,
조심스레 새로운 해를 시작하며
달려갈 길의 저 끝선을 바라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

지금껏 달려온 길이 고달파
몸도 곤하고 마음도 무거우며
떨리는 숨 고르는 일조차 이제는 힘이 드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해 주시며
보여주신 저 길의 끝이 한없이 아름답고 선하여
눈물로 흐려진 눈을 크게 떠
달려갈 길의 저 끝선을 바라봅니다.

앞길에 수많은 장애가 있고
힘들어 골백번 넘어질지라도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하는 저 길
목숨보다 소중한 저 길을 나 달려가고파.
약해진 두 다리에 힘 주고 서서
눈물로 주님께 아뢰옵니다.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시 5:8).

총현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하는 각오로
2004년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늘 힘써 헌신하시는
사랑하는 총현의 모든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뜨거운 사랑을 전합니다.

2004년 1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열왕기상 서론

‘열왕기’(列王記)라는 제목은 문자 그대로 여러 왕들의 행적에 관한 기록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 특별히 열왕기상은 솔로몬으로부터 아하시아에 이르는 여러 왕들의 행적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열왕기상은 일반적인 역사책이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확실한 신앙적 기준으로 열왕들의 행적을 평가함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신앙적인 도전과 교훈을 주는 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왕기상을 읽을 때에는 일반적인 역사책을 읽듯 해서는 안되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읽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열왕기상을 읽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첫째, 역사적 사실과 사건에만 흥미를 두지 말고 각각의 사건과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자. 사실, 교리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다른 성경에 비하여 열왕기상은 쉽게 읽어갈 수 있고, 또 흥미 위주로 읽어 내려가기가 쉽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왕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거울로 삼아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함이다(고전 10:6 참고). 그러므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식의 역사적 사실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들의 그런 행적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이다.

둘째, 지도자와 공동체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지도자와 공동체의 운명이 바늘과 실처럼 엮여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왕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 그 나라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히 거하게 된다. 반면에 왕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그 나라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서 고통 받게 된다. 열왕기상에는 이런 내용들이 가득하다. 이런 점에서 지도자가 공동체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흔히 지도자의 잘못은 잘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정서이다. 그러나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지도자들의 실수와 타락에는 시대적인 타락과 백성의 우매함도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열왕기상을 읽으면서는 어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왕을 주셨고, 또 어떤 백성들에게 악한 왕을 주셨는지도 자세히 살펴보면 유익할 것이다.

셋째, 특별히 여러 왕들의 신앙 상태와 신앙의 변화 과정을 유심히 살펴봄에 영적인 교훈을 충분히 배우도록 하자. 이분법적인 사고 틀을 가지고 어떤 왕은 선한 왕이고 어떤 왕은 악한 왕이라고 분류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선한 왕은 왜 선할 수 있었는지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악한 왕은 왜 악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자. 그리고 한 개인의 신앙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봄에 영적인 교훈을 얻도록 하자. 예를 들어, 선한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성

실하게 살려는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반면에 악한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불순종 가운데 자신을 방임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여러 왕들의 이러한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사역을 자세히 살펴보고 교훈을 얻도록 하자. 특별히 엘리야는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선지자이다. 그만큼 엘리야의 삶과 사역은 오늘날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히 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에게 도전과 교훈을 주는 내용이 가득하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삶과 사역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날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지혜와 교훈을 배우도록 하자. 흔히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사역 안에는 부족함과 연약함도 많이 있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악한 시대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연약한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도움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자.

내용분해

1. 통일 왕국 시대 1:1-11:43

- 1) 솔로몬 왕의 즉위 1:1-2:46
- 2) 솔로몬 왕의 지혜 3:1-4:34
- 3)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 5:1-8:66
- 4) 솔로몬의 부귀와 몰락 9:1-11:43

2. 분열 왕국 시대 12:1-22:53

- 1) 북쪽 지파들의 반란과 여로보암 1세 12:1-14:20
- 2) 유다의 통치자들 14:21-15:24
- 3)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15:25-16:34
- 4) 엘리야의 사역 17:1-19:21
- 5) 아합의 이스라엘 통치 20:1-22:40
- 6) 유다의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의 아하시야 22:41-53

본 장에는 온 이스라엘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압살롬의 반역의 시작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만형 암논을 피살한 일로 도망갔던 압살롬이 요압의 도움으로 귀환하게 됩니다(1-27절). 그리고 다윗과의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28-33절). 다윗 왕가의 비극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그렇게 조용히 끝날 수 있는 성격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요압의 경솔함과 충성을 가장한 이기적인 처세술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혼란과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13-14절).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상황인식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압살롬이 도망하니라”(34절)라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그가 만형 암논을 고의적으로 피살한 사건이 큰 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암논의 음행사건과 압살롬의 살인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수 7:2-25). 그 결과 무서운 반역 사건이 나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찾아온 평화는 살얼음판처럼 금방 깨질 수 있는 거짓 평화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진실한 회개와 진정한 용서로부터 옵니다. 탁월한 용모에도 불구하고 죄를 간파한 압살롬의 마음속에서는 음흉한 반역의 음모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날마다 십자가 밑에 나아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의지할 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할 뿐만 아니라 단호하기까지 한 영적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 4:17).

기도 제목 / 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압살롬의 반역과(1-12절) 다윗의 도피과정을(13-37절) 통하여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로 말미암는 이스라엘의 혼란과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전에도 사소한 한 가지 죄가 또 다른 죄 곧 게으름, 이기심, 탐욕, 간음, 반역, 살인 등을 불러온다는 것을 체험했고, 또 그에 상응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죄의 문제를 다루는 데 불성실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한 경고에도(12:10-12) 불구하고 자녀들의 죄를 간과함으로써 자신과 온 집안과 나라가 고통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허물도 회개하며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자백하고 전심으로 그것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통해 훌륭한 영적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압살롬은 다윗과의 위장된 화해로 자신의 지위가 회복되자 교활한 술책과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 반란계획을 추진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주저 없이 이용합니다(8절).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다윗 왕과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하며 백성을 기만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인정받고자 간교하게도 헤브론에서 대관식을 가졌습니다(2:1-2).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와 의 눈은 정직한 자를 향하시고… 여호와와 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시 34:15-16).

십자가는 우리를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훌륭한 영적유산을 계승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 이 복음만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압살롬의 반역사건 때문에 도피 중이었던 다윗은 조력자들을 통하여 적지 않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본 장에 들어오면서 다윗은 건디기 힘든 아픔을 겪게 됩니다. 기회주의자 시바의 술책(1절)과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의 악행(5절) 그리고 아히도벨의 악한 모략(20절)은 도피생활 가운데 있는 다윗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현재의 고난을 겸손하게 수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징계의 결과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악독한 저주를 들으면서 분노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렸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며 죄를 뉘우치고 그 치욕을 묵묵히 담당하는 다윗의 근신하는 마음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에게 닥쳐온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함으로써 오히려 가장 안전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가 “생명씨개”로 보호받는 순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삼상 25:29). 절망의 순간에 기도를 생각하는 믿음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을 의지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반면에 압살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의지하였습니다. 치밀하고도 완벽한 그의 전략은 반드시 성공할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사람의 지혜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고전 1:25).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내린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야 합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항상 승리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 의지하게 하소서. ②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담당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준비된 헌신이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압살롬의 반란은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부친 다윗을 살해하고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으로 군림하려는 그의 목적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악한 모략으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대적했던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압살롬의 급속한 쇠퇴가 이미 예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인의 길이 형통하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시 1:6). 사람들의 악한 계획이 아무리 주도면밀하여도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적 섭리 앞에서는 무력할 뿐입니다. 악인은 번성하고 어둠의 권세가 역사를 주도해 가는 것 같아도 생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 에 응답하시고(삼하 15:31) 다윗을 이 고난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14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며 보호하십니다(시 18:46).

다윗 왕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후세의 충성과 희생적 헌신이 아름답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아히마아스와 요나단, 이름 없는 여인 등의 위험을 무릎 쓴 헌신적인 도움은 다윗이 위기를 극복하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 형제가 고통으로 신음할 때, 도움을 외면하지 않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 15:13)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환란 날에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인생의 위기가 홀연히 찾아올 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벧전 1:5).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충현 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다윗은 마하나임에 진을 치고 전열을 재정비합니다(1-5절). 압살롬의 군대를 진압하기 위해 출전한 다윗의 군대는 에브라임 수풀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결국 압살롬은 여기서 죽임을 당합니다(6-18절). 압살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17:14). 압살롬의 죽음은 죄를 미워하시고 율법과 국가와 가정의 질서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모략과 경영을 막으십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은 의인을 위한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다윗의 승리는 미쁘신 하나님의 약속(7:8-16)과 그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진정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는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한편, 다윗의 승리 뒤에는 “함께 나가리라!”라고 말하며 백성의 생명을 자기 생명처럼 아끼는 지도자의 사랑과 “나가지 마소서!”라고 말하며 지도자의 안녕을 생각하는 백성들의 충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공동체에도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심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고난 받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한편, 승리의 소식을 누구보다 먼저 전하기 위해 달음질하는 아히마아스의 충성된 모습에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신(골 2:15) 예수님을 전하려는 전도자의 뜨거운 열정을 배워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압살롬의 죽음과 다윗의 극한 슬픔(1-8절), 다윗의 예루살렘으로의 귀환(9-39), 이스라엘의 갈등(40-43절)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다윗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자 먼저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다시 받아들였고 다음에는 유다가 받아들였습니다. 베냐민지파는 물론 사울의 집까지도 다윗에게 굴복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요단강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섬기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사람을 입어라” (엡 4:23-24).

본 장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모셔 오는 권한을 놓고 서로 다투는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의 논쟁은 다윗이 완전히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으나 한편 문제의 소지가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도권 싸움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들추어내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형제를 정죄하기에 급한 것이 부패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질투심과 불건전한 경쟁심 그리고 극단적인 이기심은 외부에서 도전해오는 어떤 불의한 세력보다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벧전 5:6). 복음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자랑하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담대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베냐민 지파 비그리의 아들 세바는 상처받은 이스라엘을 충동질하여 반역을 도모하였습니다(1-2절). 세바의 반역 사건은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내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친위부대를 동원하고(6-7절) 아벨의 한 여인이 지혜와 용맹을 발휘하여, 아벨 사람들로 하여금 세바의 목을 베어 요압 장군에게 던지게 함으로써 내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14-22절). 여호와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권에 대한 위협과 도전은 성공적으로 진압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와 개인의 구원이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적 사역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을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깊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개입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권을 회복하고 행정조직을 재정비하였으며 자신을 위하여 충성하였던 용사들을 등용하였습니다(삼하 8:10-18 참고). 화해와 회복과 새로운 역사의 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약점과 단점 그리고 계속되는 허물과 죄악을 드러내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부조건적인 언약의 약속대로 그를 계속적으로 보호하신 것과 다윗 왕조를 보존하신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결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유업을 이을 자니라”(갈 3:29).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의지하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이스라엘에 삼 년 기근이 일어났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내용상 압살롬의 반란 이전에 발생하였습니다. 사울이 과거에 여호수아의 약속을 어기고(수 9:3-27 참조) 기브온 족속을 격멸한 죄로 다윗 시대에 삼 년의 기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제외한 사울의 일가를 그들에게 내어 주어 죽이게 함으로써 기브온의 원한을 풀어 주었습니다(1-9절).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은 그동안 방치된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취해서 베나민 땅 셀라에 장사지냈습니다(10-14절). 그 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발생하였고 다윗은 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윗이 기브온 족속에게 사울 일가를 내어준 일은 어떻게 보면 비인간적으로 보일 수도, 요나단의 우정을 저버린 처사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행동은 사적인 감정의 개입이 없이 신앙의 양심과 공의에 따라 일을 분명히 처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모든 일을 처리할 때 공의로워야 합니다. 은혜나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대충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며 학연이나 지연으로 인해 불의의 관행으로 일을 처리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두에게 사랑을 베풀되 항상 공의롭게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며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모든 일에 공정한 판단과 행동을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누구보다도 파란 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께 드린 찬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주적으로 이어지는 모든 성도들의 찬양이기도 합니다. 이 찬양은 시편 18편에서 다시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참된 반석이며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1-7절).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권능이 있으며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8-16절).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무조건 위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로 행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17-28절).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인도하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하며(29-46절), 하나님께 영원한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47-51절).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 다윗은 본 장을 통해 자신의 영광이 결코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다윗의 구원자이시며 반석이 되셔서 모든 전쟁과 길에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푸른 초장으로, 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인생은 들에 핀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매일 매일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앞 장의 노래가 다윗의 통치 초기에 지어진 것이라면 본 장은 말년에 그의 삶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지은 노래와 회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1-7절).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부흥에 대한 소망이지만, 장차 있을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도 함께 담고 있는 고백입니다. 한편,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을 도와 왕국을 건설하고 발전시킨 용사들을 소개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들은 요셉밧세벳과 엘르아살, 삼마로서 블레셋을 격파한 일등 공신들이었습니다(8-21절). 그 외에도 희생적으로 다윗을 섬긴 아비새, 브나야와 또 한 명의 용사(22-23절)와 30인의 용사를 회고하고 있음을 봅니다(24-39절).

사람들은 흔히 어려울 때는 남에게 매달리다가 권세와 영광을 얻게 되면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말년까지 자신을 도와 나라를 세우고 발전시킨 용사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사울처럼 자신을 도운 다윗을 죽이려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믿음의 권면을 주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원토록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야말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며 도움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형통함을 인해서만 기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다윗이 통치 기간 중에 범한 두 번째 심각한 죄와 그 결과로 인하여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요압으로 하여금 전투에 참가할 수 있는 남자를 기준으로 인구 조사를 실시하도록 명하였습니다(1-9절). 이는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다윗이 곧 회개를 하였지만(10-14절) 결국 이스라엘 전국에 3일 동안 온역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15-17절). 이 재앙은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비로소 그쳤습니다(18-25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려던 교만한 다윗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보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려했던 다윗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지도자의 잘못이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오는지를 교훈해 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교회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을 때일수록 더욱 조심하여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을 이끌어 가는 복음적인 지도자로서 이 시대에 발생하는 국가와 민족의 문제에도 책임 의식을 가지고 올바른 삶을 통해 이 나라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넘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이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옥중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의 평안과 영적 진보를 염원하는 참된 목자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로마의 옥에 갇힌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의 진전을 알려서, 로마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변화에 대해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본 장뿐 아니라 본 서 전체를 통하여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내용은, 참된 그리스도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투옥이라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심오한 기쁨을 누렸으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수차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본 장을 통하여 빌립보 교인들에게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 장은 인사말을 시작으로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3-11절), 그리스도를 전파함(12-18절), 신앙의 용기와 소망(19-26절), 복음에 합당한 생활(27-30절)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난의 현실을 직시하고 믿음으로 싸워 이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연단시키시며 그들에게 궁극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에 대하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를 위해 값없이 피 흘려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앞 장에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된 자신의 심정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피력하며 그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었습니다. 본 장에서는 초점을 바꾸어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자세에 관하여 실천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들에게 겸손할 것을 명령한 다음 그 근거로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스스로를 낮추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으나 자신을 비우시고 참 인간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후에 영광을 얻으셨다는 기독교적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장의 내용은 겸손의 촉구(1-11절), 성화의 촉구(12-18절), 동역자를 추천함(19-30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옥중에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바울은 그들에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스스로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라고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것은 이미 구원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에게 성화를 이루어 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권면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도는 언제나 자기중심의 생각과 행동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행위를 지녀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참으로 겸손한 모습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와 같이 신앙으로 인해 칭찬을 들을 만큼 충성하며 복음을 위하여 헌신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는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며 천국 상급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십자가의 사랑으로 겸손함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단기 선교'를 위해 모든 교구원들이 믿음으로 준비하며 협력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유대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에 침입하여 복음의 순수성을 흐리고 있었던 바, 이에 바울은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장에 수록되어 있는 바울의 적대자와의 논쟁은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과 바울 자신의 입장을 밝혀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적대자들을 가리켜 '개들, 행악하는 자들, 손할례당' 등으로 표현하면서 매우 신랄하게 책망합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적대자들에 대하여 강경한 경고를 주고 있고,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이 가져다 준 유익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1-14절). 또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본받아 진리를 굳게 잡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되 거짓 교사를 멀리하라고警戒하고 있습니다(15-21절).

바울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아가는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바울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이 은총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는 다만 나그네에 불과하며 하늘의 본향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땅의 거짓된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 즉 그리스도로 인한 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서 거짓 된 사상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게 하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모범적인 생활을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안에서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1절). 즉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유오디아와 순두게의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접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굳게 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빌립보 교회가 직면한 어려운 시험을 이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주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4절).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임재와 위로하심을 경험하며 장차 얻게 될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쁨은 친절과 관용을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5절). 그리스도인은 친절과 관용을 계속 베풀어 그들의 선한 행실을 만인이 알도록 해야 합니다. 주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각 사람의 말과 행실로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러한 충고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향한 충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한 반석으로 삼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시련과 환난 중에서도 주님과 같은 온유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② 각 교구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와 일꾼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다윗이 매우 쇠약해져 더 이상 통치가 불가능해진 상태(1-4절)를 틈타 아도니야가 반란(5-10절)을 꾀하지만, 선지자 나단과 솔로몬의 모친 밋세바는 반란의 부당성을 다윗에게 말하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리라고 약속한 바를 속히 실행토록 종용하여 솔로몬을 즉위시킵니다(11-40절). 이 일은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시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부터 솔로몬을 택하사 그에게 왕위를 주기로 뜻을 정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기까지 결코 변치 않았습니다(대상 22:9). 이와 같은 이유로 아도니야의 거사는 실패했고, 솔로몬은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성도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이와 같습니다. 결단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에 우리는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실한 일꾼들이 있었기에 솔로몬은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 나단과 대제사장 사독과 시위대장 브나야는 당시 여러 조건이나 세력의 판도가 아도니야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처럼 반드시 신실한 일꾼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당신의 뜻을 역사 속에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욕심을 좇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위에 이루어지는 일에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② 교회 각 분야에 봉사할 '신실한 일꾼들' 을 많이 허락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서는 솔로몬이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고 마침내 왕권을 완전히 확립한 사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히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유언 속에는 왕국을 튼튼히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히 행하는 삶이었습니다(4절). 지금 다윗은 70년 생애를 돌이켜 보면서 감회어린 심정으로 그 모든 체험을 통해 얻은 진리 한 가지를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또한 어디를 가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하나님 앞에서 진실 되게 행하면 형통할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3절). 과연 다윗의 삶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는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욕심을 좇아 살 때에는 실패와 고통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죽기 전 이 귀한 진리의 사실을 솔로몬에게 꼭 전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사람 앞에서도 지혜롭게 행할 것을 권면했습니다(28-46절). 구체적으로 악을 행한 요압과 시므이에게는 그에 따른 마땅한 형벌을, 선을 행한 바실레에게는 그에 대한 합당한 상급을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곧 악한 것을 악하다 하고 선한 것을 선하다고 하면서 악을 제거하고 선을 장려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삶을 원하십니까?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진실 되게 행하는 삶이요, 또한 사람 앞에서 악과 선을 구별하고 그에 따라 적절히 행동하는 지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행하는 삶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② 교회의 모든 일들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좇아 행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4-15절). 솔로몬의 이 기도는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기도로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줍니다. 제일 먼저, 기도드리는 자의 영적 갈급함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4절).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 제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하나님께 헌신을 하겠다는 다짐으로 열심과 성의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교훈하신 힘없는 과부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재판관에게 호소하고 또 호소한 것과 같습니다(눅 18:1-8절).

두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드리는 기도입니다(9-10절). 일천번제 후 꿈 속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5절). 그 때 솔로몬은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습니다(9절). 솔로몬의 이러한 간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10절). 개인적인 욕망을 좇아 장수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지혜는 물론이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명예까지 보장받았습니다(13절). 그렇습니다. 기도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이기적인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합니다(약 4:3절). 그런즉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드리는 기도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절)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 / ① 개인적인 욕망을 좇아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도하게 하옵소서. ② 이웃을 향한 구제와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서는 솔로몬 왕이 인재를 등용하여 각 지방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세움으로써(1-19절) 평화로운 왕국을 건설한 내용과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20-34절). 오늘 우리민족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볼 때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통치자 밑에서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에게는 더욱 좋은 왕국에 의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왕국은 곧 의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통치되는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에 비하면 솔로몬 왕국은 한낱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이 땅에 세워진 솔로몬 왕국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왕국입니다.

반면에 메시아 왕국은 영원무궁토록 풍요와 지혜가 넘치는 완전하고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 왕국의 일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그 때에 이리가 어린양과 함께 거하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사 11:6-9절). 사도 요한 역시 밧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메시아 왕국의 일면을 보았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 다시 사망이 없고…”(계 21:1-4절).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메시아 왕국을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메시아 왕국(천국)의 시민 된 긍지를 가지고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빌 3:20 ; 히 11:13-16절).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 제목 / ① 눈에 보이는 현실에 연연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② 각 나라 가운데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이스라엘 최대 숙원 사업인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작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전건축은 다윗이 생전에 강력히 희망하고 바랐던 일이었습니다(삼하 7:2-3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뜻은 기쁘게 받으셨지만, 솔로몬을 통해 성전건축을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삼하 7:12-13절). 마침내 다윗은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난관이 따랐습니다. 특별히 가장 어려웠던 것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각종 건축자재를 이스라엘 내에서 구입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두로 왕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히람은 이를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 왕국의 번영을 크게 기뻐하여 성전건축에 적극 조력한 것은 특별한 은혜였습니다(7-12절). 당시 이스라엘과 두로는 서로 인접한 국가이긴 하나 종교가 서로 다르며 또한 경쟁관계였습니다. 그런데도 히람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솔로몬을 도와 성전건축에 기여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히람의 마음을 주장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위하여 솔로몬의 신앙과 지혜, 부귀영화는 물론 두로 왕 히람의 도움까지도 모두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건축에 참여하게 된 것은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장차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교회는 만민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동역자를 보내어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②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솔로몬은 왕위에 올라 약 3년 간 준비 작업을 마친 후 4년째 되는 때에 마침내 성전건축을 시작하여(1절), 먼저 외부공사를 마치고(2-10절), 내부공사를 완성함으로써(14-36절) 마침내 하나님이 계시해주신 식양대로(대상 28:11-19) 아름다운 성전을 완공합니다(37-38절). 그런데 성전 건축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건축의 기술적인 측면이나 공사 진척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전에서 행할 일에 대한 것입니다. ‘여호와와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11-13절)!’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전만 웅장하고 화려하게 건축해 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한낱 덩치 큰 건물덩어리일 뿐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성전 내부 장식에 관한 기록(14-35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건축을 하면서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양과 순금으로 장식된 성전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헌신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드리는 헌신은 어떻습니까? 단지 한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자신의 헌신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시간, 물질, 재능 모두를 다 드려도 결코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진정한 헌신자가 됩시다.

기도 제목 / ① 헌신과 순종이 있는 신령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② 단기선교를 통해 전 교회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솔로몬은 왕위에 올라 나라를 평정한 뒤 성전건축에 착수하여 7년 만에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성전을 완공하자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13년간의 오랜 공사 끝에 왕궁건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솔로몬의 건축사업을 살펴보면서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1-12절). 솔로몬이 자신의 거처할 왕궁부터 짓지 않고 하나님의 거할 성전을 먼저 건축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역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모보다 내면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13-51절). 솔로몬은 왕궁이 건축되자 이제는 성전에 소용되는 각종 기물과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사실은 성전 뜰에 배치될 모든 기구들은 순전히 놋으로 만들어 졌는데, 성전 내부의 기구들은 한결같이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러한 차이점은 각 기물의 용도상의 이유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외모의 화려함이나 형식적인 봉사보다는 내면의 순결과 중심의 헌신을 더욱 원하신다는 교훈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금과 같이 순결하고 보배로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삼상16:7절)

기도 제목 / ① 형식적이 아니라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② 강기업 단기 선교사(스리랑카)가 맡겨진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성전 봉헌식이 거행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족장들이 모인 가운데 다윗 성으로부터 성전으로 옮겨져 지성소의 그룹 아래에 안치됩니다(1-6절). 언약궤의 성전 안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출 25:22), 언약(출 25:16), 거룩(삼상 6:19-21) 등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 해도 그 안에 언약궤가 안치되지 않는다면 그 성전은 한낱 건물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고전 3:16).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과 언약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담고 날마다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 장에는 성전 봉헌식의 마지막 순서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62-66절). 성전 봉헌식은 14일 간에 걸쳐 거행되었습니다. 무수한 양과 소가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 사이의 화목을 위한 감사와 기쁨의 제사입니다(레 7:13-15). 여기서 화목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요일 2:2). 즉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화목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화목 제물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솔로몬은 성공적인 건축, 활발한 대외 무역 및 외교 등과 같은 업적으로 인해서 자칫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15-28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엄중한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다윗과 맺으신 언약(삼하 7:12-16)대로 솔로몬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시겠다는 축복과 함께, 솔로몬과 그의 자손들이 불순종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킴은 물론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도 약탈당하도록 내버려두시겠다는 경고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만 영원히 섬겨야 할 것입니다.

본 장의 후반부(10-28절)에는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평화를 엿볼 수 있는 활발한 건축 사업과 대외 무역과 외교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막대한 경비가 드는 건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부는 막강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부와 이스라엘의 번영의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두로 왕 히람과의 밀접한 관계 유지를 통한 성공적인 외교, 동서를 잇는 지정학적인 이점을 활용한 중개 무역을 통해 얻은 엄청난 부 등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왕상 3:13,15).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게 하소서. ② 협력선교사(이집트의 허요셉)가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께서서는 솔로몬이 그의 부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왕상 9:4). 이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선용하여 굳건한 왕조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이 때 아라비아 남단에 있는 스바 여왕이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고 지혜로운 이가 바로 자기 자신이심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눅 11:31).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모시고 지혜와 생명의 말씀을 듣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장의 후반부(14-29절)에는 솔로몬이 누리는 엄청난 부와 명예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절정에 달해 궁전의 모든 기물을 금으로 사용하고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따르는 솔로몬에게 재산과 지혜를 크게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때부터 솔로몬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병거와 마병의 수를 늘리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불신앙적 행위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처럼 교만은 성도가 쉽게 미혹당할 수 있는 죄 중의 하나입니다(마 16:26).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것보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겸손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소서. ②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특히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중보기도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솔로몬은 정치적 목적으로 인접 국가의 왕실과 정략결혼을 시도했고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이했습니다. 이후 그는 이방 출신 후궁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결국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고 타락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국을 솔로몬의 신복에게 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당대에는 심판을 시행하지 않고 그 아들 대에 시행할 것과 한 지파만은 남겨 두시겠다는 공약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다윗과의 언약(삼하 7:15)을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지혜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공약과 자비의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본 장의 후반부(14-43절)는 솔로몬을 대적한 하닷, 르손, 여로보암의 반역 사건을 차례로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죽음을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당대에 일어난 반역 사건은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솔로몬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 결과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히 4:17).

날마다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겸손하게 하소서. ② '충현선교훈련원' (CMTC)을 통한 모든 훈련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바로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압제 때문이었습니다. 북쪽 열 지파는 왕으로 즉위한 르호보암에게 솔로몬 치하에서의 강제 노역과 무거운 세금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사리분별에 밝은 연륜 있는 신하의 충고보다 젊은 신하들의 아첨을 듣고 무고한 강압 정치를 선포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보다 권력욕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시 1:1). 도리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유 1:20).

본 장의 후반부(20-3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영적 타락이 가속화됨을 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강압 정치를 거부하여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세운 여로보암은 유다와의 정치적 결별뿐만 아니라 다윗 언약도 저버리는(16절) 영적 타락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성전 대신 벰엘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의 제단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여로보암도 르호보암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실 영원하고 신령한 복보다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불신앙의 행위에서 떠나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롬 12:2).

우리는 육체와 함께 정욕을 십자가에 못박은 사람들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② 농여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여로보암은 당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적으로는 세겜과 부느엘에 견고한 성을 건축하고, 내적으로는 벤엘과 단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게 함으로 남 유다와의 철저한 종교 분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왕상 12:25-28). 그러나 얼마 후 여로보암은 유다로부터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선지자)에게서 벤엘 제단의 훼파 예언을 받고 그 징조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결국 벤엘 제단의 훼파 예언은 약 300년 후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행한 종교개혁으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왕하 23:15,16).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결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출 9:14-15).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인의 행동을 결코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본 장의 후반부(11-34절)에는 벤엘 제단의 훼파를 예언한 하나님의 사람이 벤엘에 거하는 늙은 선지자의 거짓과 술수에 속아 비참하게 죽은 사건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유다로 돌아올 때는 다른 길을 선택할 것과 도중에 어떤 교제로 인한 지체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8,9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벤엘에 거하는 늙은 선지자의 말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결국 사자에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고후 13:5).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을 충만케 하소서. ② 전 주일학교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앞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선지자를 통해 여로보암의 죄악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우상숭배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징조로 여로보암의 아들을 병들게 하십니다. 그래도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실로에 있는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가문에 내려질 재앙과 멸망의 예언을 다시금 들어야 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여로보암의 우상숭배 정책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우상숭배의 원인이 되었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왕상 15:33,34). 이처럼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의 은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요일 1:9).

본 장의 후반부(21-31절)도 남 유다 르호보암의 죄악 된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집권 초기 삼년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정을 베풀었습니다(대하 11:17). 그러나 그도 역시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상숭배의 죄악에 깊이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상숭배(대하 11:21)와 도덕적 타락에 빠져있던 르호보암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애굽 왕 시삭에 의해 징벌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르호보암의 행적을 보면서, “선 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 10:12)는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겸손히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소서. ② 5부 예배를 통해 주의 청년들이 복음에 매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아비얌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왕이었습니다(3절). 그는 부친인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도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아비얌의 행적에 대한 짧은 기사와 더불어 다윗의 신실함을 세 절(3-5절)에 걸쳐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로보암과 아비얌의 온전치 못한 행적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존속시키는 이유가 바로 다윗과의 영원한 언약에 근거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아비얌의 뒤를 이은 아사는 일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11,14절). 그는 선왕들이 만든 우상을 없애고 아세라 상을 만든 태후의 위를 폐하는 등 과감한 종교 개혁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우상숭배의 온상인 산당을 제거하지 못함으로 우상숭배의 여지를 남겨 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결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롬 8:31-39)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언약 때문에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본 장의 후반부(25-34절)에 기록되어 있는 북이스라엘의 나답과 바아사, 이 두 사람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며 북이스라엘을 더 깊은 영적 타락으로 몰아간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롬 5:9).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를 주소서. ② 이 땅에 소외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사실 바아사는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조장했던 초대왕 여로보암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왕상 15:25-34). 따라서 바아사가 여로보암의 악습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의 신정(神政)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아사 또한 여로보암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결국 바아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아들 대에 가문이 멸절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9-13절). 오늘을 사는 우리도 악한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롬 12:2). 하나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원하십니다(행 6:3). 지혜는 구하면 주십니다(약 1:5).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장의 후반부(21-34절)는 북이스라엘의 최악이 극에 달했던 오므리와 아합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므리는 '오므리의 율레'(미 6:16)를 제정하여 강압적인 방법으로 우상숭배에 몰두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악행은 그 아들인 아합 대를 거치면서 이방 종교를 이스라엘의 공식 종교로 받아들이는 더 악한 행적으로 나타났습니다(31-33절). 인간은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을 좋아하고 본받으려는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요 3:19). 그러므로 우리는 최악에 미혹되거나 불신앙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날이 갈수록 주님만 의지하는 더 큰 믿음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 과 ●●●●●●●●

주의 만찬

● 찬송/ 215장(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 본문/ 고전 11:23-24

들어가면서

이번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신자가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입니다.

이번 설교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 마음을 설명해줍니다. 그리고
신자라면 주의 만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주의 만찬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준다고 말해줍니다.
이번 공부를 통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의 마땅한 모습을 잘 정리하고
이번 주일에 있을 성찬식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고린도전서 11장 23-32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래의 관찰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 ① 27절: 우리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일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의 ○과 ○를 범하는 ○이기 때문이다.

- ② 28절: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려면 어떤 준비가 있어야 합니까?

- ③ 30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심으로써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어났습니까?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 ◆ 「주의 만찬」의 설교문을 읽으십시오.
-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깊이 묵상하십시오.
-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질문을 풀어 보십시오.

①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의 단락을 읽고

질문)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먼저 우리 자신을 ○○○ 하고, 죄를 ○○해야 합니다.

② '복음적인 마음으로 나아오라'의 단락을 읽고...

질문)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복음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답)

③ 감사하는 심정으로 나아오라' 의 단락을 읽고...

질문) 주의 만찬에서 우리가 표현해야 하는 감사의 내용은 각각 무엇일까요? 관련 있는 것끼리 연결해 보십시오.

답)

떡을 받을 때 ·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주셨음을 감사

잔을 받을 때 ·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음을 감사

④ '주의 만찬'의 설교 전체를 다시 한 번 묵상하면서...

질문) 주의 만찬을 앞두고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주의 만찬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답)

⑤ '주의 만찬'의 설교 전체를 다시 한 번 묵상하면서...

질문)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은혜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답)

나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기쁨과 감사로 뜨거워지고 충만해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 견고한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지하고 오늘 주의 만찬 가운데 나아오면, 예수께서는 여러분을 자신의 십자가로, 빈 무덤으로, 부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여행입니까! 이 얼마나 완벽한 미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니 이제 주의 만찬으로 나아오십시오. 그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은 여러분의 위대한 중보자이십니다.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도 그것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장래의 모든 축복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는 참으로 찬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만찬에 참여하십시오. 주님을 기억하는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순종과 함께 하나님께 바치도록 합시다.

1. 감사 / 오늘도 구역예배로 저희를 불러 모으시고 주의 만찬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 간구 / 저희로 하여금 마음을 바르게 준비하여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게 하시며, 주의 만찬을 통해 주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성찬식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3. 구역 기도 /

제목 :

본문 :

골절 용어

골절의 종류에 따라 골절의 정도와 위치를 나타내는 용어

골절의 종류

골절의 정도에 따라 완전골절과 불완전골절로 나뉘며

골절의 위치에 따라 골단골절과 골간골절로 나뉘며

골절의 방향에 따라 횡단골절과 나선골절로 나뉘며

골절의 정도에 따라 완전골절과 불완전골절로 나뉘며

골절의 위치에 따라 골단골절과 골간골절로 나뉘며

골절의 방향에 따라 횡단골절과 나선골절로 나뉘며

골절의 정도에 따라 완전골절과 불완전골절로 나뉘며

골절의 정도에 따라 완전골절과 불완전골절로 나뉘며

골절의 위치에 따라 골단골절과 골간골절로 나뉘며

골절의 방향에 따라 횡단골절과 나선골절로 나뉘며

골절의 정도에 따라 완전골절과 불완전골절로 나뉘며

골절의 위치에 따라 골단골절과 골간골절로 나뉘며

제 2 과 ●●●●●●●●

새로운 것들

● 찬송/ 543장(저 높은 곳을 향하여) ● 본문/ 계 21:1-5

들어가면서

이번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만물을 새롭게 해 주신다는 진리입니다.

이번 설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만물을 새롭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현실 속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새롭게 하신 일과
또 장차 우리를 위하여 새롭게 하실 일들을
깊이 묵상하고 굳게 붙잡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괴로움을 넉넉히 이겨낼
소망과 위로를 풍성히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요한계시록 21장 1-5절 말씀을 읽고 아래의 관찰 문제를 풀어 보십시오.

① 1절: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것은 무엇입니까?

○ 하늘과 ○ 땅

② 2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규모가 크다는 뜻

아름답고 정결하다는 뜻

③ 3절: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서로 어떤 관계로 지내게 됩니까? 관련 있는 것끼리 연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

·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심

하나님은 ·

· 하나님의 백성이 됨

④ 4절: 새 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것들을 네 가지만 적어 보십시오.

⑤ 5절: 이렇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에 앉으신 이

2. 설교 읽고서로 나누기

- ◆ 「새로운 것들」의 설교문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질문을 풀어 보십시오.

① '새로운 피조물'의 단락을 읽고...

질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신자들은 어떤 면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답) *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다시 태어났다는 점에서...

* 예수님의 피를 인하여 ○○○을 받았다는 점에서...

* 그리스도와 함께 ○○○을 받았다는 점에서...

*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에 앉게 된다는 점에서...

② '새롭고 산 길'의 단락을 읽고...

질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활짝 열려진 '새롭고 산 길'과 '옛 길'의 특징을 각각 두 개씩 찾아 맞는 것끼리 연결해 보십시오.

답)

옛 길 ·	· 인간의 노력에 근거한 길
	· 죄와 율법과 사망의 길
새롭고 산 길 ·	·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길
	·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열어주신 길

③ '새 계명'의 단락을 읽고...

질문)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답)

④ '새 이름'의 단락을 읽고...

질문)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새 이름과 우리가 부르게 될 새 찬송의 특징은 각각 무엇입니까?

답) 새 이름 - ○○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 새 이름(계 2:17)

새 찬송 - 오직 ○○ ○○○○만 높이고, 천군·천사 및 옛 성도들도
다 함께 부르게 될 찬송

⑤ '새로운 것들'의 설교 전체를 묵상하며...

질문)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때가 있다면,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답)

⑥ '새로운 것들'의 설교 전체를 묵상하며...

질문) 이번 설교를 통해서 새롭게 깨닫거나 도전받은 것을 한 가지만 말해 보십시오.

답)

나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는 새로운 모든 것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믿음을 포기하거나 믿음에서 떨어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을 단단히 붙잡도록 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올해 2004년을 시작하면서, 참 신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것들을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1. 감사 / 예수님! 죄와 허물 속에 방황하던 저희를 불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2. 간구 / 저희로 하여금 주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늘 바라보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마음에 품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하옵소서.
3. 구역 기도 /

제목 :

본문 :

스물 넷째

이 시는 스물 넷째 문장이다. (한글로 된 문장도 있다.)

이 시의 풀이

이 시는 스물 넷째 문장이다. (한글로 된 문장도 있다.)
 이 시는 스물 넷째 문장이다. (한글로 된 문장도 있다.)
 이 시는 스물 넷째 문장이다. (한글로 된 문장도 있다.)
 이 시는 스물 넷째 문장이다. (한글로 된 문장도 있다.)
 이 시는 스물 넷째 문장이다. (한글로 된 문장도 있다.)
 이 시는 스물 넷째 문장이다. (한글로 된 문장도 있다.)
 이 시는 스물 넷째 문장이다. (한글로 된 문장도 있다.)
 이 시는 스물 넷째 문장이다. (한글로 된 문장도 있다.)
 이 시는 스물 넷째 문장이다. (한글로 된 문장도 있다.)
 이 시는 스물 넷째 문장이다. (한글로 된 문장도 있다.)

이 시는 스물 넷째 문장이다. (한글로 된 문장도 있다.)
 이 시는 스물 넷째 문장이다. (한글로 된 문장도 있다.)
 이 시는 스물 넷째 문장이다. (한글로 된 문장도 있다.)
 이 시는 스물 넷째 문장이다. (한글로 된 문장도 있다.)

제 3 과 ●●●●●●●●

잃어버린 말씀

● 찬송/ 235장(달고 오묘한 그 말씀) ● 본문/ 아모스 8:11-14

들어가면서

이번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그대로 믿으며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이번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버림으로써
영적으로 크게 부패해졌던 이스라엘을 설명하면서
시대를 막론하고 영적 부패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서 떠나는 데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번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을 다시 점검해보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관찰 질문을 풀어 보십시오.

① 암 1:1 - 선지자 아모스의 본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② 암 1:2 - 선지자 아모스가 주로 외친 메시지는 무엇에 관한 메시지입니까?

축복 전쟁 홍수 기근

③ 암 8:11 - 이스라엘에 임한 기근은 어떤 종류의 기근입니까?

양식이 없는 기근

물이 없는 기근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기근

④ 암 8:12,13 - 기근의 심각성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관련 있는 것끼리 연결해 보십시오.

사람이 ·

·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사방으로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젊은 남자가 ·

· 처녀와 다 같아 피곤하리라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 ◆ 「잃어버린 말씀」의 설교문을 천천히 한 번 읽으십시오.
-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질문을 풀어 보십시오.

① '말씀을 버린 자들에게 선포된 예언'의 단락을 읽고...

질문) 아모스가 예언할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를 정리해서 말해 보십시오.

답) 생활수준

영적상태

② '영적 부패의 원인'의 단락을 읽고...

질문)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부패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답) 자신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의 ○○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영적 부패의 원인'의 단락을 읽고...

질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왜 영적 부패의 근본적인 원인일까요? 신 8:3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 보십시오.

답)

④ '약속도 없게 됨'의 단락을 읽고...

질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어떤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까?

답)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도 잃어버리게 된다.

⑤ '안타까운 현실'의 단락을 읽고...

질문) 설교자가 지적하고 있는 오늘날의 안타까운 현실을 정리해 보십시오.

답) 성경을 ○○○의 말씀으로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적다.

자신의 ○○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한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한 권의 훌륭한 ○쯤으로 여긴다.

재치 있는 추론 능력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성경을 허물어뜨린다.

⑥ '목숨보다 더 소중한 성경'의 단락을 읽고...

질문) 이 단락이나 이번 설교를 읽으면서 느끼거나 깨달은 것을 한 가지 씩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답)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흥해와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이 부활에 이르는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길로 행할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영원한 축복과 행복과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04년의 첫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결코 다른 일을 시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소망이요 행복이요 축복이며 생명입니다. 아멘.

기도

1. 감사 /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시어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 간구 / 저희로 하여금 늘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겨 가까이 두고 읽게 하시며 묵상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3. 구역 기도 /

제목 :

본문 :

Blank area for sermon notes.

제 4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 찬송/ 519장(십자가를 질 수 있나?) ♣ 본문/ 마 4:17-22

들어가면서

이번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그의 제자이며 '사람을 낚는 어부' 라는 진리입니다.

이번 설교는 예수님께서 열 두 제자를 부르신
과정과 그 목적을 설명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사람을 낚는 어부' 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번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과연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여러분의 삶을 점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로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관찰 질문을 풀어 보십시오.

① 18절-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② 19절-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 내가 너희로 ○○을 낚는 ○○가 되게 하리라”

③ 20절-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 ◆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설교문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아래의 질문을 풀어 보십시오.

①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 '의 단락을 읽고...

질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 ○○ 님은 어부를 만드시려고...

*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 사람을 만드시려고...

* 자신의 ○○○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② '제자들을 선발하신 방식' 의 단락을 읽고...

질문)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발하신 방식을 보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것을 말해 보십시오(고전 1:26-29).

답)

③ '예수님을 따르려면' 의 단락을 읽고...

질문)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 이전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던 일을 멈추어야 한다.

* ○○○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야 한다.

* 예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야 한다.

*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한다.

* ○○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우리 자신의 ○○를 버려야 한다.

④ '오직 예수님만이'의 단락을 읽고...

질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목사님 성경 공부 프로그램
제자 훈련 예수 그리스도

⑤ '제자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단락을 읽고...

질문)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답)

⑥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인가?'의 단락을 읽고...

질문) 이 단락을 읽고 깨달거나 느낀 점이 있다면 한 가지씩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답)

나가면서 출근길의 '어떻습니까'이 쏜다

2004년도의 첫 달을 보내면서, 제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을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려는 소원이 불일 듯 일어날 것입니다.

1. 감사 /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우시기 위하여 훈련하시고 가르치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 간구 / 저희로 하여금 날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족함이 많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3. 구역 기도 /

제목 :

본문 :

한글 맞춤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글의 통일과 표준화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글의 사용

제2조 (한글의 사용) 한글은 한글로만 표기한다. 다만, 한글과 로마자를 혼용하여 표기하는 경우에는 한글과 로마자를 각각 한글과 로마자로 표기한다.

제3조 (한글의 사용) 한글은 한글로만 표기한다. 다만, 한글과 로마자를 혼용하여 표기하는 경우에는 한글과 로마자를 각각 한글과 로마자로 표기한다.

제4조 (한글의 사용) 한글은 한글로만 표기한다. 다만, 한글과 로마자를 혼용하여 표기하는 경우에는 한글과 로마자를 각각 한글과 로마자로 표기한다.

제 5과 ●●●●●●●●

예수께로 달려가라

● 찬송/ 330장(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 본문/ 막 5:1-6

들어가면서

이번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버려진 죄인들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 나가면,
그 사람은 영원한 복과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되며,
그 결과 은혜의 선포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설교는 거라사인의 지방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달려가 그 앞에 엎드린 어떤 미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나아가야만 하는 우리의 비참함을 지적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 달려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복된 결과를 가져오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달려나가는 신앙과 삶을
다시 한 번 깊이 묵상해 보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나아가
엎드려 경배하는 신앙과 삶의 소유자가 되도록 합시다.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관찰 질문을 풀어 보십시오.

① 2절: 거라사인의 지방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② 3-5절: 예수님께 나아온 이 사람은 어떤 형편에 있었습니까?

* 사는 장소(3절): ○○ 사이에 거처하였다.

* 힘의 세기(4절): 아무도 그 사람을 ○○할 힘이 없었다.

* 밤낮 하는 일(5절): 밤낮 늘 ○○지르며, ○로 자기 몸에 상처를 냈다.

③ 6절: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이 사람이 보인 두 가지 반응은 무엇입니까?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 ◆ 「예수께로 달려가라」의 설교문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아래의 질문을 풀어 보십시오.

① '죄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단락을 읽고...

질문) 무덤도 많고 미친 사람도 있는 해변가를 일부러 찾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됩니까?

답)

② '예수님을 알아본 죄인'의 단락을 읽고...

질문)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써 이 사람이 얻게 된 좋은 기회는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에게 자신의 ○○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

③ '아, 놀라운 은혜'의 단락을 읽고...

질문)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 나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④ '은혜로운 초청'의 단락을 읽고...

질문)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사람이 얻게 되는 복은 어떤 것들입니까?

답)

- * 죄 사함
- * 하늘의 완전한 모든 ○○
- * 구원과 ○○
- * 은혜의 선물
- * 표현할 수 없는 ○○

⑤ '아, 말할 수 없이 큰 사랑'의 단락을 읽고...

질문) 탕자의 비유 가운데서, 아들을 기다리고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아 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 보십시오.

답)

⑥ '하나님께로 돌아가자!'의 단락을 읽고...

질문) 최근 1년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에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처럼 예수님께 달려 나가 었드린 일이 있었다면, 그 때의 경험을 간단하게 말해 보십시오.

답)

나가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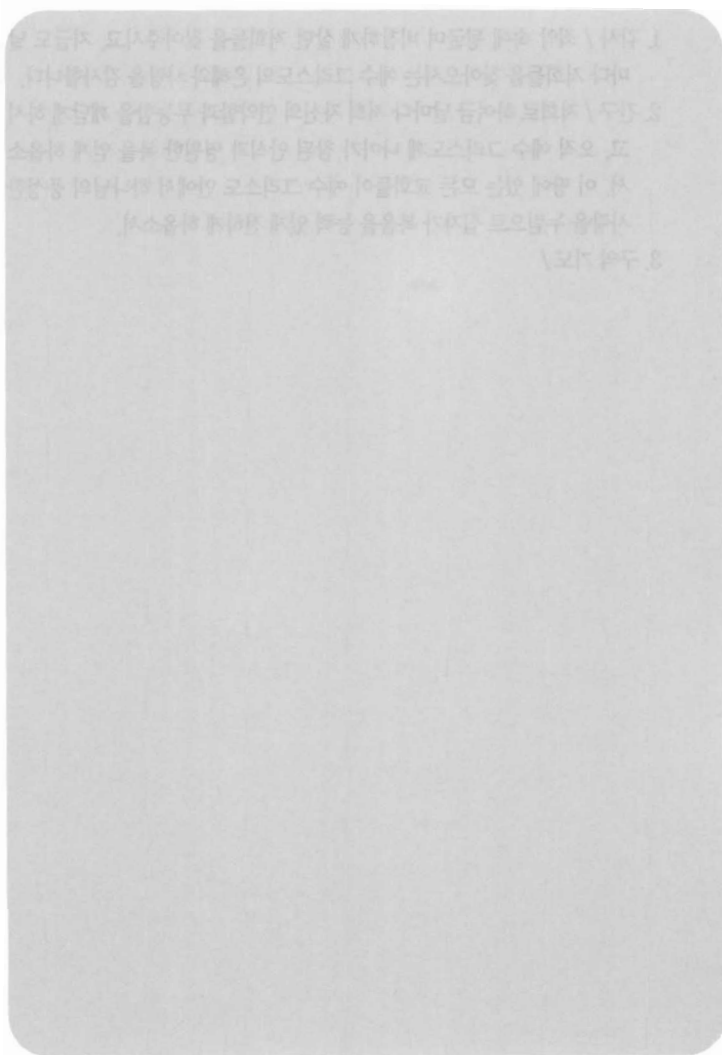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십시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달려 나와 여러분을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께 달려 나아가십시다. 마귀의 쇠사슬과 고랑을 모두 깨뜨려 버립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마 13:15).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마 13:17).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멀리서도 예수님이 보이거든 그분에게 달려가 엎드려 경배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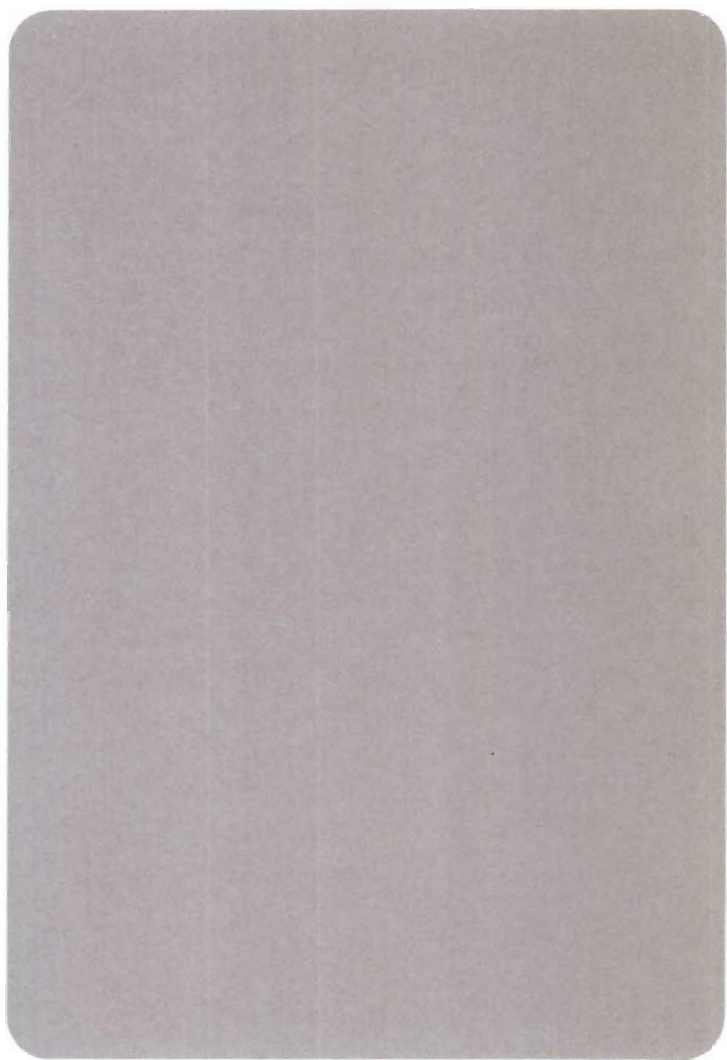
기도

1. 감사 / 죄악 속에 뒹굴며 비참하게 살던 저희들을 찾아주시고, 지금도 날마다 저희들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 간구 / 저희로 하여금 날마다 저희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참된 안식과 영원한 복을 얻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림으로 십자가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3. 구역 기도 /

제목 :

본문 :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제5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남성도구역공과' 는 '구역예배공과' 중 '제5과' 를 해당공과로 삼아서 공부하기로 합니다.

전통문화유산두코창립

전통문화유산두

전통문화유산두 1
전통문화유산두 2
전통문화유산두 3
전통문화유산두 4

본서에서 중 '전통문화유산두' 즉 '전통문화유산두'에
대한 설명은 본서에서 부록 1에서 설명한다.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총현의 만나 · 2004년 1월호 · 발행인 / 김성관 · 편집인 / 노광현

· 집필진 / 만나 : 이정진(1-7일), 최성규(8-14일), 조규호(15-22일),

이재영 (23-31일) 목사

· 구역예배공과 : 이태복 목사

· 발행처 / 총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6-1 전화 552-8200) **판매처**
